

国際シンポジウム

北朝鮮脱出者の文学活動と韓国文壇  
— 「脱北者」による記録文学の現状と課題 —

資 料 集

日時 2016年10月1日 14時～18時

場所 富山国際会議場大手町フォーラム

主催 富山大学人文学部朝鮮言語文化研究室

オーガナイザー 富山大学人文学部准教授 和田とも美

この国際シンポジウムは「文部科学省平成28年度科学技術人材育成費補助事業  
ダイバーシティ研究環境実現イニシアティブ（特色型）」の助成を受けました。

この資料集の無断転載は御遠慮ください。

## 国際シンポジウム「北朝鮮脱出者の文学活動と韓国文壇」開催にあたって

和田とも美

2015年秋、韓国で『국경을 넘는 그림자』(国境を超える影)という小説集が刊行されました。北朝鮮脱出後、韓国に定着して作家として活動する6名と、韓国の7名の作家が北朝鮮問題を題材にした作品を書いて、共同で刊行したものです。脱北者の作品は、北朝鮮の内情や脱北過程、韓国での定着過程を外部に知らせる重要な資料です。とってノン・フィクションではありません。

北朝鮮の内情を伝えたり、脱北過程を記述した手記は、韓国でも日本でも、また英語圏でもすでにくつか刊行されています。日本では斉藤博子著『北朝鮮に嫁いで四十年』やリ・ハナ著『日本に生きる北朝鮮人 リ・ハナの一步一步』があり、英語圏ではHyeonseo Lee著*The Girl With Seven Names: Escape from North Korea* (邦訳有)や、Yeonmi Park著*In Order To Live: A North Korean Girl's Journey to Freedom* (邦訳有)がよく知られています。これらの手記は非常に精密で、北朝鮮での生活や、脱北過程の困難をよく伝えてくれます。ただこれらの手記は、様々な場面で類似した記述を持つことも確かです。同じ空間を生きている以上は共通点も多く、公に話せることは既に出尽くした感があります。しかし小説では、公には言えない話、自分の経験としては言えない話を、虚構という仮面を付けて語ることができます。実際、『국경을 넘는 그림자』に収録された脱北者の作品を見ると、手記では語り尽くされていない、北朝鮮に生きる人々の様々な側面が見えてきます。同時に、脱北者がなかなか公言できない、韓国で作家活動をする上での様々な制約や困難も見えてきます。

一方韓国の作家は、公式どおりに脱北者と韓国人の関係について描こうとし、同時にそれを書くこと自体が、いかに困難であるかを露呈してしまっています。これは小説ならでのことです。

今回、この小説集に参加した4名の方をお招きしました。近年ノーベル文学賞でも、戦争や政治的抑圧下に生きる人々を描いた「記録文学」がキーワードになっています。脱北者による文学も、その受入を描く韓国の文学も、その一事例になり得るものです。この小説集に収録された作品はどれも、文学として優れているとはまだ言えません。今後韓国文壇が「記録文学」のジャンルを慎重に育てて行くのであれば、なかなか国外では理解されない韓国の文学が新たな段階に進む可能性を持っていると私は見えています。

2016年10月1日

\*修正はシンポジウム終了後加えました。

## 作品解説 イ・ジミョン「불륜의 향기」

### あらすじ

韓国に定着した脱北者の男性二人が、漢江で遊ぶソウル市民を眺めながら対話している。先に定着した「私」が、新たに入国してきたキム・ムンソンに近況を尋ねる。ムンソンは、楽しそうなソウル市民を見ながら意気消沈した姿を見せ、「私」の問いかけに答え、その悩みを語り始める。それによると、ムンソンは保安員として幸せな家庭生活を送っていたが、世の中の混乱の中で妻が心身共に変調をきたし、家庭生活が成り立たなくなった。経済的困窮も加速し、ムンソンも疲弊して行った。そのうちに、巨額密輸事件の捜査を指揮したムンソンは、ハン・ユジンと出会う。ユジンは脊髄の曲がった体で一人で暮らしながら、巨額の鉱物密輸にかかわっていた。ムンソンは哀れに思って罪を免れるよう事件を処理する。やがて二人は恋愛関係になる。ユジンはムンソン一家に対する経済的援助を惜しまない。妻と離婚し保安員も辞職したムンソンは脱北を決意する。しかしユジンは同意しない。韓国に定着したムンソンはユジン呼び寄せようとするが、ユジンは、ムンソンの妻子の為に脱北と韓国行を手配する。妻子はまもなく韓国に到着する。その話を聞き終わった「私」は、ユジンの行動に深く感銘を受ける。

### 解説

長い作家活動の経験を通じて培われた文章力と、堅固な物語構成力が見て取れる。あらすじとしては平凡な不倫物語と言えるだろうが、細部では、北の社会的・経済的混乱が、一組の夫婦の生活をどう破壊して行くか、また保安員の現場の様子が精密な文章で語られている。

また、入国して来た脱北者が韓国社会に対して抱く違和感や疎外感の要因の一つとして、困窮する北側に残された者たちへの罪悪感があり、簡単には解決できない問題であることも示されている。これは災害や戦争などを生き残ったサバイバーたちが普遍的に抱える問題でもある。

### イ・ジミョン作家への問いかけ

日本では少し前に、韓国のドラマが注目を集めた時期がありました。それらのドラマを通じて、韓国の男女がまるで恋愛しか頭に無い生活を送っているようなイメージが広まりました。韓国ドラマは恋愛物というイメージが定着し、DVD等の売り上げが伸びるにしたがって、韓国ではドラマを重要な輸出商品と認識し、日本の視聴者の好みに合うような作品を大量生産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ドラマは現代の戯曲の一種で文学作品の一つです。私も韓国語を勉強し始めた1990年前後からたくさんの韓国ドラマを見て来ました。どこの国・地域のドラマでもそうですが、もともとの場所で視聴者を多く獲得するドラマは、その社会に根差し、その社会が抱えている問題に真摯に対峙するものです。しかしあまりに日本への輸出を意識するあまりに、韓国ドラマは大きく変わりました。韓国から見て不自然な恋愛や家族愛ばかりを主題にした作品が溢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また日本の視聴者も、似たような恋愛物ばかりが続いて飽きて離れて行ってしまいました。ここ二、三年の韓国ドラマは、輸出先を中国に替え、あいかわらず恋愛物を大量生産しています。ドラマだけではなく韓国の文学全体が、輸出に重点を置くあまりに、恋愛物や家族愛物に傾いてしまいました。しかし、早期から日本で韓国の文学を読んでいた少数の人たちは、むしろ韓国社会を映し出すような作品を望んでいた読者層です。もともと

의讀者層にとっては、昨今の過剰なまでの恋愛物、家族愛物の氾濫は受け入れ難いものです。

私はイ・ジミョン作家の作品を読んで、恋愛物語ではありながらも、むしろ日本の以前からの読者が感じるような違和感や批判的視線が、隠されているように感じました。この点について、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

同時に、韓国内では恋愛物が主流ではあっても、これを脱北作家が主題にして創作すると、どのような反応があるのでしょうか。脱北作家は北朝鮮の実情や脱北過程について作品を書いていけばいいのであって、恋愛のような普遍的な問題には手出しをしなくていい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反応が予想されます。それでも敢えてイ・ジミョン作家が、恋愛という普遍的な領域について語るのは、脱北作家に対して課せられる題材の制約に対する、一種の批判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どうでしょうか。

### 이지명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日本에는 조금전까지 한국드라마가 주목을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들을 통해서 한국드라마 즉 연애이야기라는 이미지가 정착되었습니다. DVD등 드라마관련 상품이 대량 판매되면서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중요한 수출 상품으로 인식하여 일본 시청자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들을 대량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한류라는 현상입니다.

드라마는 현대의 희곡의 하나이며 문학작품의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1990년 전후부터 많은 한국드라마를 봐왔습니다. 어느 나라 드라마에서도 그렇겠지만 본래의 나라에서 시청자가 많은 드라마는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회가 내포하는 사회문제에 진지하게 맞서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일본 수출을 의식하게 된 결과 한국드라마는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봐도 부자연스러운 연애나 가족사랑만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 시청자들도 비슷한 연애이야기만 계속되는 한국드라마에 질려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2,3년 사이에 한국드라마는 수출 대상을 중국으로 변경해 여전히 연애이야기를 다량생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전체가 지나치게 수출에 중점을 두어 연애이야기나 가족사랑이야기에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한국문학을 읽었던 소수의 일본 독자들은 오히려 한국사회를 조명하는 작품을 바랐던 독자층입니다. 원래 독자층에게는 최근의 지나친 연애, 가족사랑 이야기의 범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지명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연애이야기이면서도, 예전부터 한국문학을 읽었던 일본독자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나 비판적 시선과 상통하는 것이 숨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한국국내에서는 연애 이야기가 주류이기는 하나 이것을 탈북작가가 주제로 하여 창작을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탈북작가는 북한의 상황이나 탈북과정에 대해 작품을 쓰면 그만이지 연애와 같은 보편적인 문제에는 손을 대지말라는 식에 반응이 예상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래도 이지명선생님이 굳이 연애라는 보편적인 영역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탈북작가에 대해 주어지는 주제 제약에 관한 일종의 비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和田とも美]

[강연 1]

## 사랑과 영적관계 -소설 '불륜의 향기'를 쓰게 된 계기와 과정

이지명

### 불륜에 대한 이해

불륜은 어떤 의미로 보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라면 긍정할만한 행위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가족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없애야 할 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사회를 이루는 가정이 순결하고 튼튼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를 약화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불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그럼에도 삶에는 너무나 많은 불륜이 존재한다.

나름대로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겠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하며 피하지 못했다면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륜도 엄연히 사랑이라 말한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불륜이 이겨낼 수 없는 사랑에 의해 진행되었다하더라도 다른 또 한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므로 아직까지 인간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륜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사랑, 그 자체가 인정받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본다. 만인의 축복을 받는 사랑이던 만인의 멸시를 받는 사랑이던 두 사람에게는 똑 같은 것이니까.

사람의 삶을 우리는 천태만상이라 한다. 조목조목 삶을 따져보면 어떤 조목이던 이론이 있고 체계가 있고 방식이 있다. 그런데 사랑에는 이론도 없고 체계도 질서의 구애도 방식도 없다.

왜 그러냐에 대해 부디 짚을 필요도 없다. 사랑은 상식과 의식으로 좌우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영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식이 사랑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사랑은 영적행위다.

소설 '불륜의 향기'를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사람의 의식에 작용하는 이 영적영향에 대한 일정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체험보다는 의문이란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동네에는 스물다섯 살 난 젊은 남자가 오십 살 되는 여자를 사랑한 일이 있었다.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자 남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호되게 질책했고 심지어 의절까지 선포하며 폭행했다.

## 恋愛と霊的な関係—小説「不倫の香気」を書いたきっかけと過程

イ・ジミョン

### 不倫に対する理解

不倫はどのような意味で見ても、人間の暮らす社会であれば肯定できるような行為ではない。

それはむしろ真の恋愛に対する冒涇であり、家族の持つ意味から云えば、どうしても無くさねばならぬ敵だと言える。

社会を構成する家庭が、純潔で堅固である為には様々な条件が必要だろうが、それを弱体化させるものの一つがこの不倫ではないか、とも思っ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人生にはあまりにも多くの不倫が存在する。

それぞれ当事者なりの理由があり条件があろうが、結婚をした人間であれば、無条件避けるべきであり、避けられなければ清算すべきであろう。

ある人々は、不倫も厳然たる恋愛だと云う。一理はある。だが不倫が抑えきれない恋愛によって進められたとしても、もう一人の人間の胸に傷を負わせることであり、今のところ人間社会では認められないものであろう。にもかかわらず不倫が無くならない理由は、恋愛それ自体が、他の誰かに認められる為に進められるものではないからだと考える。万人の祝福を受ける恋愛であろうと、万人に蔑視を向けられる恋愛であろうと、当の二人には同じことではないか。

人間の人生を、我々は「千の姿と万の形象」だと云う。人生の一片一片についてよく考えて見ると、どんな一片にも理論があり、体系があり方式がある。だが恋愛には理論も無く、体系も、秩序の縛りも方式も無い。

なぜなのか、敢えて言い当てる必要も無い。恋愛は常識や意識に左右され得る行為ではなく、霊的な行為だと云えることが、もっとも近い答えだからだ。

と云って、意識が恋愛に何の影響も与えられないと云っているのではない。

### 恋愛は霊的行為だ。

小説「不倫の香気」を書く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ちょうど人間の意識に作用する、この霊的影響に対する一定の体験があったからだ。体験というよりは、疑問を持ったという言葉がより適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

筆者が中学生だった頃、近所に25歳になる若い男性が50歳になる女性に恋をしたことがあった。結婚までするのだと云うと、男性の父親は、息子をひどく叱りつけ、しまいには縁を切ると宣言して殴りつけた。

사회적으로도 비웃음을 샀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렇지만 젊은 남자는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그 남자의 아버지 역시 20살이나 어린 젊은 여자와 세 번째로 재혼해 살았는데 새엄마와 아들의 나이차가 네 살밖에 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는 되고 나는 안 되냐고 항의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린 여자와 사는 것과 네가 엄마 별되는 여자와 살겠다는 것이 같으냐며 또 폭행을 했다. 물론 그건 아버지뿐이 아닌 사회의 질타이기도 했다.

필자 역시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다. 25살이면 분명 어머니 별이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할 결심을 했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성장한 이후에도 내내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어느 날 아, 하고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 남자는 태어나 두 살 때 친모를 잃었다고 한다. 결혼하겠다는 50살 나는 옆집여인이 그때 엄마의 친구였고 나이도 같았다. 엄마는 어린 아들을 두고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친구인 옆집여자에게 생전에 아기를 부탁했다고 한다.

남편이 계모를 들일 것은 분명한데 구박받을 아기를 두고 눈이 감기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그 여자는 죽은 친구의 부탁대로 아기를 맡아 키우다시피 했다고 한다.

나는 그 총각이 옆집여자를 통해 엄마의 정을 느꼈고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성장해 어른이 되자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나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마침내 아버지와 의절하고 그 나 많은 여자와 결혼까지 강행한 것을 보고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 감탄했다.

얼핏 생각하건대 그것 역시 사랑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죽은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땅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었을 터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영똥한 생각을 했다. 그렇지 않다면 만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어떻게 그리도 말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 나이 많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애기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 끼우며 키웠던 자식 같은 남자와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을까,

소설 ‘불륜의 향기’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곱사등이 여자는 실제 인물이었고 보안원김문성도 실제 인물이다. 소설에 전개된 내용과 달리 불법밀수로 많은 돈을 벌었던 곱사등이여자는 죽을 때까지 유부남인 그 남자와 결혼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에게 사랑을 준 남자에게 끝까지 충성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저주까지 받으면서도 그 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진심을 바쳤다.



社会から冷笑され、どこに行っても後ろ指を指された。それでも若い男性は自分の恋愛を放棄しなかった。当時その男性の父親は父親で、20歳も年下の若い女性と三回目の再婚をして暮らしていたが、その義理の母になる女性と男性とは、年齢差が四つにしかならなかった。息子は父親になぜ父親はそれで良くて、僕はだめなのかと抗議した。父親は俺が年下の女性と暮らすことと、お前が母親の年齢ぐらいの女性と暮らすことが同じことなのか、と云ってまた殴りつけた。もちろんそれは父親だけでなく、社会の叱咤でもあった。

筆者もまた、当時は理解できなかった。25歳差なら、たしかに母親ぐらいの年齢だ。それなのにどうしたら結婚まで決心できるのだろう、常識では理解できなかった。

大人になってからもずっと疑問に思っていたが、ある日、ああそうか、と思い付いて膝を叩いたのだった。

その男性は2歳の時に実の母を失ったそうだ。結婚しようとする50歳の隣の家の女性が、その時母親の友達で年齢も同じだった。母親は幼い息子を残して病で早逝するのがあまりに心残りで、友達である隣の家の女性に、生きているうちに幼い子のことを頼んだと云う。

夫が後妻を連れてくることは分かりきっていたが、冷たくされるだろう幼い子を残して目を閉じ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らう。その女性は死んだ友達の頼みどおり、幼い子を引き取ったも同然に育てたという。

私はその青年が、隣の家の女性を通じて母の情を感じたのであって、それが恋愛に昇華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成長して大人になって結婚すると云い出した時、父親や、また社会に認められるとは思わなかつたらう。ついには父親と縁を切り、その年齢の高い女性と結婚まで強行したのを見て、私は実にすごい恋愛だと感嘆した。

ちょっと考えればそれもまた恋愛の結果だと云えるだろうが、私には違うと考えられた。死んだ母親が本当に感謝して土の中でも目を閉じられたらうし、それが霊的に息子に伝わ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突飛もないことを考えた。そうでなければ、万人が後ろ指を指しているのに、その男性がその女性とそれほどまでに生涯幸せに暮らせはしなかつたらう、と考えるのだ。

その年齢の高い女性も同様だ。子供の頃からおしめを替えて育てた、息子のような男性と、どうしたら結婚までできたのだろうか。

小説「不倫の香気」の主人公たちも同様だ。脊髄の曲がった女性は実在する人物で、保安員キム・ムンソンも、実在する人物だ。小説に展開される内容とは違って、不法密輸で多額の金を稼いだ脊髄の曲がった女性は、死ぬまで妻帯者であるその男性と結婚することはできなかつたらう。それでも自分に愛情をくれた男性に、最後まで誠実だった。男性も同じだった。妻に恨まれながらも、その女性の為にできることは何でもしたし、真心を尽くした。

혹여 북한이 그 어려운 삶속에서 굶사등이여자가 가진 재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전제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용을 남자가 보안원(경찰)군복을 벗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북한에서 보안원이란 직업이 아닌 권력이다. 권력 없는 사람과 가진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가짜사랑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용기는 없었을 것이었다. 그 남자의 진정이 가슴을 녹였기에 굶사등이 여자는 죽으면서도 집과 일체 모든 재산을 부모가 아닌 남자에게 넘겨주고 갔다. 남자는 여자가 죽은 후 그 여자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왔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결의 눈이 무섭고 무절제한 사회적 질타와 같이 사는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다른 마을로 이사 갈 수도 있었지만 이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그런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필자 역시 알 수가 없다. 나는 다만 보통 사람들과 달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영적 계시가 늘 곁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호 관계 속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무수한 질타에도 끄떡하지 않고 소신대로 무난히 살아갈 수 있을까,

## 삶을 보는 작가의 안목

나는 이 소설을 쓰며 영적 존재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물론 이건 버젓이 내놓고 역설하는 어떤 주장이 아닌 나만의 생각이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내 지식과 상식으로서는 종내 밝힐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내게도 그런 영적 계시라든가 빛이 좀 비쳤으면 하는 것이었다.

신은 나만 딱 빼놓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영적 영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체험도 없다. 내가 어떤 이해 못 할 타인들의 삶에 대해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해 이미 정해놓은 어떤 규칙과 질서, 또한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활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칙이 있고 책대로 사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작가가 가질 눈이 아니고 사고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가가 쓰는 작품은 이미 알고 있는 또 보이는 삶과 어떤 정신적 영역에 대한 기록과 나름대로의 해설로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향하고 또 살고 싶은 영역의 새로운 삶이 작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것처럼 따분한 작품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신적이라든가 영적인 것을 작가는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或いは北朝鮮のあの困難な生活の中で、脊髄の曲がった女性が持っている財産の為に、男性が恋愛感情を利用したのではないかと見ることもできる。だがその利得を、男性が保安員（警察）の軍服を脱いでまで諦めようとしなかったとすれば、それは間違っている。

北朝鮮で保安員と云えば、職業ではなく権力だ。権力の無い人間と有る人間の違いは、天と地の違いだ。偽りの恋愛であれば、そこまでの勇気は出なかつただろう。その男性の真心が心を溶かしたからこそ、脊髄の曲がった女性は死んだ後にも家と全ての財産を、両親ではなく、男性に残してこの世を去った。男性は女性の死後、その女性が暮らしていた家に引越し、他人の目を気にかけずに暮らした。

周囲の視線に対する恐れや、無節制な社会的叱咤や、共に暮らす妻に対する濟まなさを考えれば、他の地域に行って暮らすこともできただろうが、この男性はそうしなかった。

なぜそうしたのか、そんな意志がどこから生じたのか、筆者にも分からない。私はただ、普通の人々とは違ってそういう人々には誰にも分からない霊的な啓示が、いつも傍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そうでなければ、相互関係の中で生きる人間が、どうして無数の叱咤にもびくともせず、自分の思い通りにしながら何事もなく生きていけるだろうか。

### 人間の生を見つめる作家の目

私はこの小説を書きながら、霊的な存在についていろいろと考えた。もちろんこれはおおっぴらに力説するような何かの主張ではなく、個人的な考えだ。私としては理解できないその人々の精神世界について、私の知識と常識ではついに明らかにできず、理解もできなかった為だ。

ただ願わくば、私にもそういう霊的な啓示だとか光が少しは与えられたら、と思う。

神は私だけきっぱり除外されたので、私は霊的な領域について何の知識も体験も無い。私が理解できないある人の人生に対して、霊的という言葉が好きで使うのも、その為だ。

しかし一つだけははっきりさせておきたい。

目に見える人生に対して、既に定められているある規則と秩序、また道徳と倫理の尺度だけで評価し、その尺度だけを活用すれば、その人には原則があり、決まりどおりに生きる人間であるかもしれないが、作家ではないと考える。それは作家が持つ目ではなく、思考でもない。そうなればその作家が書く作品は、すでに知っている、または見えている人生と、ある精神的な領域についての記録と自分なりの解説にしかならないからだ。人間が志向し、また生きることを望む領域の新しい生が、作品に反映されるのでなければ、それほどつまらない作品は無いだろうと考える。従って私は、作家というものは、神的だとか霊的なものが自分に訪れるのを望むのではなく、自分で作り出す人間だと云いたい。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접한다. 그것이 법에 어긋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해도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그 나름의 향기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향기는 만 사람을 즐겁게 한다. 아직 사람이 개척하지 못한 영역에서 이상하게도 달콤한 향기가 풍겨 온다면 또 그것이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감명을 준다면 것처럼 바람직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미래적 지향을 창조하고 형상해 내는 사람이 진정한 작가라고도 생각해본다. 감사합니다.

我々は生きる間に、理解できないたくさんの事に接する。それが法に背き、人に許されない事だとしても、本人はもちろん他人に害を与えない限り、いかなる場合にもそれぞれの香気があると私は考える。

香気は万人に喜びを与える。まだ人間が開拓していない領域から不思議にも甘い香気が漂って来るとすれば、またそれが現実世界に生きる人間に、良い感銘を与えるとすればそれほど望ましいことはないだろう。そうした未来的な志向を創造し、形成して行く人間が、本物の作家だと考える。

[日本語訳文 和田とも美]

## 作品解説 ト・ミョンハク「책도둑」

### あらすじ

作家同盟委員長の家に泥棒が入った。無くなったのは本で、貴重書ばかりだ。回収図書に指定されても見られない本、写真、絵、解放直後の切手、30年以上こつこつと集めていた。それを失った委員長は魂の抜けた人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だが回収図書も含まれているからには、訴え出るわけにもいかない。同じく同盟に勤務する作家が本探しに協力する。委員長は元教師で、幼稚園の先生だった夫人と恋愛結婚をした。結婚後、文才を認められて専業作家として華々しく活動した。党にも認められて豪華な生活を送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世の中が混乱し始め、経済的困窮が始まった。商売に手を出した夫人は失敗ばかり繰り返し、ついには食べる物にも事欠くようになった。委員長はなすすべもなく、職場にウサギを連れて通っている。ウサギを飼っていくばくかの収入を得ようというのだ。そんな状況で、残してあった貴重書までも盗まれてしまった。やがてその犯人が明らかになる。夫人が夫に内緒で売り払ってしまったのだった。

### 解説

軽快な文章に皮肉っぽい語り口、推理小説のような展開の速度感、どれも熟練した文学の技巧が見て取れる。北側で正式に文学を修学した経験が、作品に歴々と表れている。また北側で青年が作家になり、作家として働き、道作家同盟委員長に昇格して行く過程が生き生きと描かれている。一方で、結婚に至る過程や成功した作家夫婦の生活、経済的混乱に巻き込まれて困窮して行く作家夫婦の生活もまた、細かく描かれて行く。脱北作家の作品というと暗鬱な雰囲気が予想されるが、その予想を見事に裏切って見せる。登場人物は誰も、かなり追い詰められた境遇にあるが、悲喜こもごもの明るい語り口調で終始する。

### ト・ミョンハク作家への問いかけ

小説の中で、貴重な資料について言及されています。私は朝鮮半島の近代文学を勉強する為、三年半を越えて韓国に留学しました。私と共に学ぶ国文学専攻の大学院生たちは、私を見ると日本近代文学と一緒に勉強しようと誘いました。そして日本文学に関わる資料について入手できないか頼みました。もちろん、人の役に立てるということは嬉しいことです。しかし私は韓国の文学について勉強しに行ったのであって、日本文学について教えに行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韓国の文学について一緒に勉強させてくれる院生は誰もおらず、韓国の文学について聞くと、「日本みたいに面白いものが無い」という返事を聞くばかりでした。

脱北者についても韓国の文学者たちは同じように接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北側に近代文学の資料は残っていないか、あればそれを持って来ることはできないか、北側で亡くなった近代文学者た

ちの消息は分からないか、そんな話ばかり聞かれ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私が事前に記録文学についてお伺いしたのは、題材の限定や刺激的な内容、機密性の高い情報を盛り込んだ作品を期待して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近年、ノーベル文学賞が記録文学に注目しています。戦争や政治的抑圧下にある人々を主題にした作品が受賞しています。しかし受賞作を見ると、戦争や政治的な状況が必ずしも前面に出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また刺激的な内容でも、機密性の高いものでもありません。また韓国でよく好まれる、抵抗精神の顕著なものでもありません。むしろ一般人の人生が、心の流れが、淡々と記録されている作品です。今後、韓国文学で脱北者たちの記録文学が成熟して行く為には、読者の成熟も必要になります。韓国文壇が、刺激的でおもしろい話や機密性の高い実話ばかり求めるのであれば、脱北者文学は簡単に損なわれてしまうでしょう。この点について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

### 도명학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소설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귀중한 문학적 자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한반도의 근대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3년반넘게 한국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게 된 국문학전공 대학원생들은 저만 보면 일본 근대문학에 관해 같이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문학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도와드릴 수 있다면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문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간 것이지 일본문학에 관해 가르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문학에 대해 같이 공부해줄 대학원생은 아무도 없었고 한국문학에 대해 물으면 ‘일본처럼 재미있는 작품이 없다’ 그런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혹 탈북자 분들에게도 한국의 문학자들이 똑같이 접하는 것이 아닌가요. 북쪽에 근대문학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지, 있으면 그것을 가져올 수 없는지, 북쪽에서 사망한 근대문학자들의 소식을 알 수 없는지, 그런 물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기록문학에 대해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정된 주제나 자극적인 내용, 기밀성 높은 정보를 담은 작품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최근에 노벨문학상이 기록문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억압 아래 눌러있는 인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작을 보면 전쟁이나 정치적 상황이 반드시 전면에 앞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적인 내용도 기밀성이 높은 내용도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서 환영받는 저항정신이 현저한 작품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삶이, 마음의 흐름이 담담하게 기록된 작품들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기록문학이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는 독자의 성숙도 필요합니다. 한국문단이 자극적이며 재미있는 이야기, 기밀성이 높은 실화만 요구한다면 탈북자 문학은 쉽게 손상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和田とも美]

[강연 2]

소설 “책 도둑”의 창작 배경과 경위, 한국문단에 대한 소견

도명학

먼저 소설집 “국경을 넘는 그림자”에 포함된 저의 소설 “책 도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허구가 5%정도 들어갔을 정도로 사실 그대로를 소설 형식을 갖춰 창작한 것입니다. 수기나 실화로 써도 되겠지만 소설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소설을 읽는 느낌과 수기나 실화를 읽는 느낌이 다른 만큼 독자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데 소설형식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실정은 탈북자들이 쓴 수기가 적지 않게 나왔음에도 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을 그냥 전달하다보니 나오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힘은 아무래도 소설이 클 것입니다. 순수 허구로 된 소설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독자가 몰입되고 등장인물과 함께 웃고 함께 울지 않습니까. 이게 소설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소설 “책 도둑”에서 나오는 작가동맹 위원장은 실지 인물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듣자니 창작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는 나이도 많습니다. 책 도둑인 부인은 시장에 나가 별치 않은 장사를 하는데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천성이 장사할 재목이 못돼 하루 벌어 하루 먹을 것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속했던 조선작가동맹 양강도 위원회 현역작가는 과거 30명 정도였는데 제가 탈북 할 당시엔 7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5명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작가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신인작가가 발굴되지 않고 기존 작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작가가 되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국문과는 사범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에 있습니다. 학생 수는 채우지만 작가의 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대학졸업증을 타고 다른 분야로 갑니다. 겨우 몇 명이 기자 혹은 문학교사가 됩니다.

문학을 전공할 것도 아니면서 국문과에 다니는 것은 본인의 선택보다 당국의 일률적인 배치에 의한 것입니다. 수학을 하고 싶어도 국문과에 가라면 가야 합니다.



## [講演 2]

# 小説「本泥棒」の創作背景と経緯、韓国の文壇に対する所見

ト・ミョンハク

まず『国境を超える影』に収録された私の小説「本泥棒」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この小説は、虚構は5%ぐらい含まれているぐらいで、実際にあったことを小説の形式に沿って創作したものです。手記や実話物として書いても良いでしょうが、小説として書きた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その理由は、小説を読む感覚と、手記や実話物を読む感覚は違うのですから、それだけ読者の感性を効果的に刺激するという点で、小説という形式が適していると考えられました。

特に韓国の実情を言えば、脱北者たちが書いた手記は少なくない数が出版されていますが、読者がそれ程いません。事実をそのまま伝えても自分とは関係の無い、他人の話として聞くことになるからです。

他人の話が自分の話として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する力は、何ととっても小説が大きいでしょう。純然たる虚構で作られた小説も、作られ方によっては、読者が感情移入し、登場人物と共に笑い、共に泣きますよね。これが小説の力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この小説「本泥棒」に登場する作家同盟委員長は、実在の人物です。今も生存しており、伝え聞くところでは創作はほとんどできない状況だと云います。それぐらい食べて行くことが困難で、もう年齢も高くなりました。‘本泥棒’になった夫人は市場に出て些細な商売をしています。小説に書いたようにもともと商売のできる性質ではなく、一日分稼いで一日分の食費を賄うこともできないと云います。

私が属していた朝鮮作家同盟両江道委員会の現役作家は、かつて30名ぐらいでしたが、私が脱北する頃には7名に減り、現在は5名ぐらいにしかないと伝え聞いています。

小説に書いたように、作家たちの生活はあまりに困難で、新人作家が発掘されず、既存の作家は時と共に消えつつあります。作家を希望する青少年はあまりいません。作家になれば悲惨にな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す。

文学を専攻する国文科は、師範大学や金日成大学の文学部にあります。学生の数は定員に達していますが、作家の道を希望する学生ではなく、大学の卒業証書を得て他の分野に行きます。かろうじて数名が記者、或いは文学の教師になります。

文学を専攻するのでもないのに国文学科に通うのは、本人の選択より当局の一律的な配置によるものです。数学をしたくても国文科に行けと云われれば行かねばなりません。

학생들은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권력기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생은 노동당 간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거기다 국문과 전공자는 이공계 전공자에 비해 노동당 간부에 더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북한 문단이 대가 끊어질 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이 생전에 문학대학을 설립하여 작가를 많이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학대학이 설립 되고도 몇 년 동안 개강하지 못했습니다.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가양성기지인 만큼 실력 있는 교수가 필요한데 데려올 곳이 없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수들은 최고 명문대 교수라는 직책을 던지고 신설대학에 가겠다고 나설 리 없고 사범대학들은 자기 대학도 실력 있는 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작가들 중에서 뽑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작가가 부족해 당국이 요구하는 작품량이 나오지 않는 데다 작가들 자신이 그냥 글만 쓰겠다고 교수가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문학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속 시켰습니다. 그제야 대학 타이틀이 좋으니까 가겠다고 사람들이 생겨 교수진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학대학 졸업생들이 작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만한 분야에 가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을 나오고도 그러니 사범대학 국문과 출신들 중에 작가가 나올 리 없습니다. 작가들의 생계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북한 작가들이 옛날에는 생계가 이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반인들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 경제가 파탄된 결과입니다.

작가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북한 작가는 현역작가와 현직 작가로 나뉩니다. 현역작가는 전업 작가인데 다른 나라 전업 작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전업 작가, 즉 현역작가는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쟁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동맹, 즉 직장에 출퇴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글을 씁니다.

월급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월급이 2,000원이면 작가의 월급은 3천원이 넘습니다. 일반회사 신입사원 월급이 1,000원 가량인데 비하면 확실히 높습니다.

거기다 현역작가는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따로 받습니다. 북한 작가들은 판매부수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권이 팔리든 천권이 팔리든 규정된 원고료를 국가가 동일하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장편소설 원고료가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대단한 목돈을 받는 셈입니다.

学生たちは一度大学を卒業すれば、権力機関のほうに行こうとします。金日成総合大学と師範大学の卒業生は、労働党幹部になることのできる、重要な条件になります。その上国文科専攻者は、理工系専攻者に比して、労働党の幹部により適していると見られます。

そういう実情ですから、北朝鮮の文壇が途絶えてしまう危機にあります。それで金正日が生前に文学大学を設立し作家を数多く育てようとした。ですが文学大学が設立されても何年もの間、授業を始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教授陣を確保できなかったからです。作家養成基地になるのですから、実力のある教授が必要です。ですが連れて来る元になる場所がありませんでした。金日成総合大学朝鮮語文学部の教授たちは、最高名門大の教授という職責を抛り出して新設大学に出て来るわけはありませんし、師範大学のほうは自分たちのほうでも実力のある教授が不足しているので、人を出す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作家の中から選出することも難しいことでした。ただでさえ作家が不足して、当局が要求する作品量を満たせないでいる上に、作家たち自らただ文章を書くことを望み、教授になることを嫌がりました。

それで文学大学を、金日成総合大学に所属するようにしました。それでやっと大学のタイトルが良いので行こうという者が現れ、教授陣が確保できました。

ですが文学大学の卒業生たちは、作家の道に進むのではなく、食べていける分野に行く傾向があります。金日成総合大学の文学大学を卒業してもそうなのですから、師範大学の国文科出身者の中には、作家が出て来る筈がありません。作家たちの生計があまりに苦しい為、こういう現象になります。

北朝鮮の作家たちはかつてはこれ程生計が困難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実際、一般人よりずっと良い暮らしでした。北朝鮮の経済が破たんした結果です。

作家の生活保障の為のシステムはそのまま残っています。それについて御紹介します。北朝鮮の作家は、現役作家と現職作家に分けられます。現役作家は専業作家で、他の国の専業作家とは違いがあります。

北朝鮮の専業作家つまり現役作家は毎月、月給をもらいます。月給取りなので、家で自由に創作するのではなく作家同盟、つまり職場に出退勤します。事務室に座って文章を書きます。

月給は多いほうです。例えば、わりに良い会社に通う人の月給が2千ウォンとすれば、作家の月給は3千ウォンを越えます。一般の会社の新入社員の月給が千ウォン程度であることに比して、確実に高い月給です。

加えて現役作家は、原稿料は原稿料で別途もらいます。北朝鮮の作家は、販売部数にはあまり神経を使うことはありません。一冊売れようが、千冊売れようが、規定の原稿料を国家が同一に支給する為です。長篇小説の原稿料がだいたい15万ウォンから20万ウォンだったと記憶していますが、現在はどう変わったのかは分かりません。とにかく相当にまとまった金を受け取るわけです。

이뿐이 아닙니다. 좋은 작품을 내면 보너스로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선물로 받습니다. 생필품은 간부공급소에서 반값으로 공급받습니다. 현역작가는 중당당 간부와 지위가 비슷하므로 간부공급소 대상입니다.

작가에 대한 공급체계와 지위를 이만큼 잘해주는 것은 문학을 체제선전을 위한 효과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데로부터 작가의 충성심을 유발시키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가의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시장에서 쌀 1키로 값도 안 됩니다. 장편소설 원고료 20만원을 받아도 시장가격으로 TV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간부공급소에 가던 것도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지방은 간부공급소들이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경제난으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작가들이 굶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아무 권력이 없는 작가에게 누가 뇌물을 바칠 것도 아니므로 비참한 글쟁이로 비웃음을 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에게 돌려지는 당국의 혜택을 조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선작가동맹에 가입할 당시는 공교롭게도 수백만명이 굶어죽던 시기였습니다. 운수가 정말 나빴던 셈입니다.

현직 작가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현직작가 중에 예술단이나 극단 같은 곳에 적을 두고 해당분야에 필요한 작품을 전문으로 창작하는 작가를 전속작가라고 합니다.

현직 작가들은 자기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작품에 한해서는 국가로부터 원고료를 받습니다. 현역작가와 현직 작가의 원고료 차이는 없습니다. 현직 작가 지위는 현역작가처럼 중앙당 간부정도는 아니지만 지방당 간부 수준에 속합니다.

제가 소설 “책 도둑”을 쓴 의도는 위에서 열거했듯 현실과 괴리된 작가의 내면에 이는 자아의 혼란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북한의 암울한 시대상을 엿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문단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북 작가가 겪는 한국 문단에서의 어려움은 첫째, 서로 다른 문학을 해온 데로부터 느끼는 차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 드리면 저는 원래 소설을 한편도 써보지 못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과 시가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상을 탔다는 시들을 읽어보면 온통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시였습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良い作品を出せば、ボーナスで高価な家電製品などを贈り物として受け取ります。生活必需品は幹部供給所で半値で供給されます。現役作家は中央党幹部と同等の地位にある為、幹部供給所の対象です。

作家に対する供給体系と地位を、これほど良い待遇にするのは文学を体制宣伝の為の効果ある手段として考えるところから、作家の忠誠心を誘発しようという目的です。

ですがもう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作家の月給がどれ程高くとも、市場で米1キロの値段にもなりません。長篇小説原稿料20万ウォンをもらっても市場の相場でテレビ一台の値段にもなりません。

幹部供給所に行ったことも、はるか昔の話です。地方は幹部供給所が閉鎖になって随分になります。経済難で全てが無用之物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結局、作家たちが飢えるしかなく、その上何の権力も無い作家に誰が賄賂をおくるわけでもなく、悲惨な物書きと冷笑されます。

私は個人的には、作家に回される当局の恩恵を、少しも得られませんでした。私が朝鮮作家同盟に加入していた当時にはちょうど、数百万人が飢え死にしていた時期でした。運が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現職作家は、他の職場に通いつつ、作品活動をする作家です。現職作家のうち、芸術団や劇団のようなところに籍を置いて、該当分野に必要な作品を専門に創作する作家を専属作家と云います。

現職作家は自分の職場から月給をもらい、作品の分については国家から原稿料をもらいます。現役作家と現職作家の原稿料の違いはありません。現職作家の地位は、現役作家のように中央党の幹部程度ではありませんが、地方党の幹部級に属します。

私が小説「本泥棒」を書いた意図も、ここまで列挙したように、現実と乖離した作家の内面に引き起こされる自我の混乱を通じ、読者に北朝鮮の暗鬱な時代相を垣間見え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した。

次に韓国文壇における困難についてお話します。

脱北作家が経験する韓国文壇における困難はまず第一に、互いに異なる文学をして来たところから感じられる違いです。個人的な経験をお話すれば、私はもともと、小説を一度も書いたことのない、詩人でした。

ですが韓国の詩を見て、衝撃を受けました。北朝鮮とは詩があまりに違ったのです。韓国で賞をもらったという詩を読むと、どれもこれも何を云わんとしているのか、理解できない難解な詩でした。

저는 그런 시를 읽을 자신도 없고 더구나 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시를 애써 배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시를 청탁 받아 발표한 것이 좀 있는데 전문으로 시를 쓸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

소설은 그런대로 공통점이 많아 해볼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리얼리즘 형식의 소설은 작법에서 북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고 막상 써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어려움은 한국문단에 문벌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탈북 작가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맙게도 방민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점이 큰 난관입니다.

세번째 어려움은 생계입니다. 물론 남한 작가들도 대부분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요.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탈북 작가의 작품 홍보가 어렵습니다. 홍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대형출판사들이 나서주고 언론들이 관심을 돌려주면 좋겠는데 한국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문학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문학이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정보가치가 뛰어난 책은 일부 사람들이 자료연구용으로 보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남북문제가 무엇이든 국내 정치와 엮어지는 일이 많아선지 사람들이 북한과 관련한 것이라면 외면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제 생각엔 무관심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탈북자의 기록문학이 빛을 보는 곳은 한국보다 외국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이 관심이 많습니다. 탈북 작가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도 한국보다 북한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해 전 탈북시인의 시집이 일본에서 출간돼 한국보다 훨씬 많이 팔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내 관심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국민정서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私はそんな詩を読む自信も無く、いわんや書く気持ちになれませんでした。読者が聞いて分からないような詩を、苦勞して学びたい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

それで詩を諦めました。それでも時折、詩を依頼されて発表したものが少しありますが、詩専門に書こうという気持ちは、今でもありません。

小説はそれなりに共通点が多く、やってみようと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特にリアリズム形式の小説は、創作方法において北朝鮮と大きな違いが無いように見えましたし、いざ書いてみると書くことができました。

二つ目の困難は、韓国の文壇には文閥があるようですが、脱北作家は依って立つところがありません。ありがたいことに、パン・ミンホ教授のような方たちがいらっしゃるので幸いですが、この点が大きな難関です。

三つ目の困難は生計です。もちろん韓国側の作家もほとんどが困難だということは知っていますが。それでも北朝鮮に比べれば天国だと肯定的に考えています。

四つ目は、脱北作家の作品に関する広報が困難なことです。広報は何もしないで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大型出版社が全面に出て、言論が関心を向けてくれれば良いのですが、韓国の雰囲気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最後に、記録文学の可能性についてお話します。記録文学が北朝鮮の現実を知らしめることにおいて重要なことはそのとおりです。[訳者註 講演にあたって「記録文学の可能性についても考えをお聞かせ願いたい」と依頼した為] ですが私の経験によると、情報価値の高い本は、一部の人たちが資料研究用に読みますが、一般人はほとんど読みません。それが韓国の実情です。

韓国は南北問題は何であれ国内政治につながることが多いからか、人々は北朝鮮に関連することには顔を背ける傾向があります。もちろんそうではない人もいますが、私の考えでは、無関心な人のほうが多いようです。

脱北者の記録文学が光を見るのは、韓国より外国です。特にアメリカ、ヨーロッパにおいて高い関心が見られます。脱北作家の作品がベストセラー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

日本人も、韓国より北朝鮮問題により関心があると聞きました。何年か前、脱北詩人の詩集が日本で出版され、韓国よりもずっとたくさん売れたと聞いています。[訳注 張真晟『わたしの娘を100ウォンで売ります』2008年刊のことと見られる]

こうした現象が続けば、自然に韓国内での関心も変わって行くだろうと思われます。すでにそうした兆候が見え、国民情緒も少しずつ変わりつつあります。

以上で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日本語訳文 和田とも美]

## 作品解説 ソル・ソニア「チノクという女」

### あらすじ

チノクは勤務先の幹部に性的関係を強要され、その息子との結婚も断れず、結婚生活に幸せを見出せない。やがて商売を始めると才能を発揮し、金儲けに生きがいを見出して行く。仕事をする間に男性との関係が増え、夫ではない子を妊娠する。商売の中断を恐れて産まない選択をする。中絶手術は不法だが、近隣の女性医師が引き受けている。女性医師は望まない妊娠をした女性たちの為というより金儲けの目的が強い。チノクはその家で手術を受ける。

### 解説

前半部分では 10 代から望まない性関係を強要され、強いられた結婚生活を送っていたチノクが、商売を始めることによって自らの意志で人生を切り開いて行く様子が描かれている。商売をすることで家の外に出るようになり、性についても自分の意志で夫以外の男性と関係を持つようになる。この物語では経済的な困難と混乱がむしろ、一人の女性に自分の人生を切り拓く道を与えている。後半では、夫以外の男性の子を妊娠したチノクが、産まないという選択をするまでの話が語られる。どちらの選択をするか悩みながらも、結局は商売を優先する。不法で行なわれる手術の方法は前近代的なもので、チノクの身体に大きな負担を与えた。女性医師については金銭目的で施術しているように描かれている。

### ソル・ソニア作家への問いかけ

講演文に小説の主人公を売春に見ないでほしい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が、日本では誰も主人公を売春と見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むしろなぜそういう話が出てくるのかがよく理解できません。「チノクという女」という小説では、主人公は 10 代中盤から職場の幹部から性的関係を強要され、その息子との望まない結婚を避けられませんでした。この点で、北朝鮮の腐敗した官僚社会の犠牲者だといえます。その後商売を通じて自分の人生を開拓して行く際には、むしろ北朝鮮の経済的混乱が、この女性を救済しています。困窮が彼女に商売をする機会と家の外の生活を与えました。また退職後の経済的保障が無くなった為に、彼女の義父も家庭内での力を失い、彼女はその抑圧から解放されます。一方、家の外に出た主人公は夫ではない男性と能動的に性関係を持ち、性的な快楽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ここまでは、受動的な人生を強要された女性が、様々な側面で能動的な人生を獲得して行く過程が描かれています。

後半では主人公は夫ではない男性の子を妊娠して出産をするかどうか悩んだ末に、結局産まないという選択をします。小説ではその過程があまりに整理されずに記述され、「本能」とか「罪の意識」と云うような言葉が飛び交っています。出産の決定権は誰にあるべきなのかという問題が、「本能」とか「罪の意識」というような言葉で隠されてしまっています。命がけて妊娠し出産する役割を持たされた以上は、その決定権は全的に女性にあること、社会はその決定が純粹に女性自身の意志でなされるよう支援し、その決定が完遂されるよう支援すること、産もうと産むまいと医療的に最大限女性の身体に負担にならないような措置を受けられるよう制度が整えられること、こうした問題が小説では完全に放置され、女性が出産を望むのは「本能」であるというような根拠無い曖昧な話になっています。講演文では、性について能動的に快楽を追求したり、自分の意志で性を利用する積極性をもって、新しい女性像だと主張されているようです。ですがそういう事例は近代以前から見られるものです。



こうした主張は、別な観点から見れば、脱北女性に常に性についての悲惨な話が要求されるところから来る反発ではないでしょうか。特に脱北過程で女性たちは性的関係を強要されたり、売春するしかなかったという類の話が、注目を集めます。そういう現状に対する反発として、いや北朝鮮にも性的に能動的な女性は存在する、というような話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 설송아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강연문에서 소설 주인공을 매춘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는 아무도 주인공 진옥이를 매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옥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10대 중반부터 직장간부에게 성적관계를 강요받았고 그 아들과 원치않은 결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북한의 부패된 관료사회의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후 장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데서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적 혼란이 이 여성을 구제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함이 그녀에게 장사를 할 기회와 집 밖의 삶을 주었습니다. 또 퇴직후 경제적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녀의 의부도 퇴직후 집안에서 힘을 잃게 되었고 그녀를 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한편 집밖에 나선 주인공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능동적으로 성적관계를 갖게 되고 성적 쾌락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삶을 강요받은 여성이 여러 측면에서 능동적인 삶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소설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며 ‘본능’이라든지 ‘죄의식’등의 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출산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본능’이라든지 ‘죄의식’라는 말에 가려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목숨을 걸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역할을 맡겨진 이상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는 그 결정이 순수히 여성 스스로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 결정이 완수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낳든 낳지 않든 의료적으로도 최대한 여성의 신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소설에서는 완전히 외면되어 ‘본능’이라는 근거없는 애마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문에서는 성에 관해 능동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뜻으로 성을 이용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새로운 여성이라고 주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는 근대 이전부터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탈북 여성들에게는 꼭 성에 관한 비참한 이야기가 요구되는 데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여성들은 성적관계를 강요당했거나 매춘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반발로, 아니다, 북한에도 성적으로 능동적인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식에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和田とも美]

## 단편소설 ‘진옥이’를 쓰면서

설 송 아

필자는 소설작가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원고청탁을 받고 나서, 그냥 편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필자가 살아 온 인생에 인간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는 1990년대~2000년대이다. 이 시기는 해외에서 평하는 북한장마당시대이다. 인간 본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마디 더 하고 싶다면 여성성이 분명히 변했다는 점이다. 사회교육이 주장하는 여성성은 현모양처, 남성이 주장하는 여성성은 가부장제, 즉 원천적인 약자의 위치다.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에 여성들이 직접 자기 몸으로 ‘성’을 바꾸었다는 것은 진통과 혼란, 희생의 대가였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겪어 온 필자는 사회가 만든 성을 깨버리고, 자기 성을 찾아가는 북한여성들을 쓰고 싶었다. 자기를 파괴한 위에 가져온 성의 변화라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 대단한 힘이었다. 그 힘의 역학관계 시초가 권력에 종사했든, 매춘부로 몸을 팔았든, 성을 시장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됐든, 그런 것의 잘잘못을 필자는 따지고 싶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며 누구라도 북한사회에 던져진다면 그렇게 진정한 성을 찾는 여성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북한은 성 개혁의 시대이다.

성 개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하다. 자기 성을 찾으려는 북한여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깝고, 중립적이고 리얼한 전달이 문학소설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단편소설 ‘진옥이’를 쓰게 된 동기이다.

처음 소설이 발표된 후 한국 언론들의 평가는 “단편소설 ‘진옥이’는 북한 여성이 생존을 위해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돈을 모으는 인생유전을 통해 북한세태의 이면을 그렸다”는 단평이다. 주관적이고 단미로운 평가이다.

그러나 세태보다는 좀 더 깊이 내재된 여성들의 성 심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 “과연 북한 여성들은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표현하고 있을까.” 필자가 40년 북한에서 살면서 늘 심각히 생각했던 문제제기였다. 그리고 친구들 수다가 시작되면 이 문제가 도마였다.

### [講演3]

## 短篇小説「チノクという女」を書いて

ソル・ソンア

筆者は小説作家の正規教育を受けたことは無い。原稿の依頼を受けて、ただ気楽に、人が生きる話を書きたいと考えた。筆者が生きて来た人生に、人間について学ぶことができたのは1990年代～2000年代だ。この時期は、国外で云う‘北朝鮮市場時代’だ。人間の本能をそのまま見ることができる時と呼びたい。

この全ての事を最初から見守り、経験して来た筆者は、社会が作り上げた性を壊して自分の性を求める北朝鮮の女性を書きたかった。自らを破壊したところからもたらされる性の変化だとしても、これは確かに大きな力だった。その力の力学関係の始まりが、権力に従事しようが、売春婦として体を売ってしようが、性を市場手段として意図的に使用しようが、そういうことの過ちを筆者は問い詰めたいのではない。人間が生きる物語で、誰でも北朝鮮社会に投げ込まれるのであれば、そうして真の性を求める女性が賢明だと考えるからだ。ひと言で現在の北朝鮮は、性改革の時代だ。

性改革と云えば、あまりに大がかりでもある。自分の性を探し求める北朝鮮の女性たちの人生を少しでも近く、中立的に、リアルに伝達するものが小説、文学だと考えた。これが短篇小説「チノクという女」と書くことになった動機だ。

小説が発表された時、韓国の言論の評価は「短篇小説「チノクという女」は、北朝鮮女性が生存の為に男性と性関係を持つ対価として金を集めるという人生流転を通じて、北朝鮮の世態の裏面を描いた」という短い評だった。主観的で単調な評価だ。

だが世態より、より深く内在する女性たちの性心理を語りたかったというのが作者の意図だった。「果たして北朝鮮の女性たちは、自分の性を持っているのか。持っているとすれば、それをどのように所有し、表現しているのか」

筆者は40年を北朝鮮で生きながら、常に深刻に考えていた問題提起だった。そして友達の間でおしゃべりが始まれば、この問題が話題になった。

“...엄마가 되려는 본능을 죽이고 돈을 번다고 자기를 영웅화시키지만 배속의 태아를 죽이는 산대에 올라서는 다시 인간 본능으로 하여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다시 깨닫는 순간 북한 여성들은 다시 야성으로 변한다. 오직 돈을 벌어야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한 대목.

소설의 주인공 진옥이는 태아를 죽이기로 결심하며 모순적인 고민에 빠진다. 여성으로 태어남을 한탄하는 북한여성들의 단면이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사회 기준으로 볼 때 진옥이는 거의 매춘에 가깝다. 그러나 진옥이 시각으로 보면 그는 성으로 사회를 배웠고, 성으로 권력을 다스리고 시장을 개척하는 발전성 있는 북한 신여성이다. 이런 여성들이 이른바 북한 돈주들로 시장을 주도한다.

‘어두운 곳에서 돈이 나온다’는 말이 북한시장 유행어이다. ‘어두운 곳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옛 성조들의 말과 유사하다. 북한이 기준한 도덕윤리대로 북한을 평가한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불법만이 돈이 된다’는 이치가 바로 북한사회 ‘순리’로 작용하는 바, 하물며 진옥이의 성행위는 죄도 아니며 여성성의 순수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진옥이는 작가의 중학교 동창친구이다. 노래도 잘했고 인물도 이쁘고,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다. 비록 간부과장에게 강간당하긴 하지만 그는 강간에 머무르지 않았다. 권력과의 섹스에 만족을 느끼는 순진한 북한여성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성으로 노동자였던 아버지를 당시 영향력있는 4호창고장으로 옮기는데 권력을 이용했다.

소설과 달리 진옥이는 결혼한 후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성을 단순 매매하는 여성들은 돈에 만족했지만 친구는 늘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했다. 그는 남편과의 문제, 시아버지와의 애정문제, 외도남자와의 사랑문제로 북한사회를 다각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졌다.

지금도 친구가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왜 우리는(여성) 밤에 남자에게 반드시 깔려야 되지’ 성교육이 없는 북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그만큼 생리적인 성과 사회가 만든 성 충돌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예민하고 아프게 다가온다. 섹스의 주도권은 남자가 아니라 평등함이라는 사실접근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의 가부장제가 진옥이 같은 여성들을 통해 깨어지고 있으며 무질서한 혼란기속에 성혁명은 사회문화와 충돌하고 있다. 성행위의 합법기준은 무엇인가. 남편과의 섹스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母になろうという本能を押し殺して金を稼ごうとする自分を英雄のように思うが、腹中の胎児を殺す分娩台に乗ると、もう一度人間の本能で罪の意識を感じるのだ。だが現実をもう一度考えると、北朝鮮の女性は再び野生的になる。ただひたすら金を稼がねばならないと、生きぬかねばならない為だ。

(「チノクという女」より)

小説の主人公チノクは、胎児を始末することを決心し、矛盾する苦悩に陥る。女性として生まれたことを嘆く北朝鮮女性の断面だと云いたい。

北朝鮮社会の基準から見ると、チノクはほとんど売春に近い。だがチノクの側から見ると、彼女は性を通じて社会を学び、性を通じて権力を得て市場を開拓する発展性のある北朝鮮の新女性だ。こうした女性たちがいわゆる北朝鮮の金の主として市場を主導する。

‘暗いところから金が出て来る’という言葉は北朝鮮の流行語だ。‘暗いところから生命が出て来る’という昔の先祖たちの言葉に似ている。北朝鮮が基準としていた道徳倫理のままに北朝鮮を評価するとすれば、罪人でない者は一人もいないだろう。‘不法だけが金になる’という理屈が、ちょうど北朝鮮社会の‘道理’として作用するのであって、その上チノクの性行為は罪でもなく、女性性の純粹性にも背くものではない。

もう少し説明するとすれば、チノクは作家の中学校の同窓の友である。歌も上手で見た目もかわいらしく、かしこくて賢明な女性だった。たしかに幹部課長に性行為を強要されはしたが、それは強要に留まらなかった。権力とのセックスに満足を感じるおとなしい北朝鮮女性ではなかった。彼女は自分の性によって労働者であった父を、当時影響力のあった4号倉庫長まで押し上げる為に権力を利用した。

小説とは異なり、チノクは結婚後、心理的苦痛を味わった。性を単純売買する女性は金に満足するが、友はいつも、「私は誰なのか」について悩んだ。彼女は夫との問題、義父との愛情問題、それ以外に関係した男性との愛情問題を通じて、北朝鮮社会を多角的に見る視点を持った。

今でも友達が言う言葉が忘れられない。「どうして私たち（女性）は、毎晩男性に、決まって下敷きにされないといけないの」 性教育の無い北朝鮮でのみ出て来る質問だ。それ程に生理的な性と、社会が作り上げた性の衝突は、男性より女性により鋭く痛みを伴って迫って来る。セックスの主導権は男性にのみあるのではなく、平等だという事実へのアプローチが始まったのだ。

北朝鮮の家父長制が、チノクのような女性を通じて壊れつつあり、無秩序な混乱期の中で、性革命は社会文化と衝突している。性行為の合法基準は何か。夫とのセックスが合法だと云えるのか。

진옥이의 성행위는 합법적인 섹스는 없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남편과의 섹스조차 강간이다. 오히려 외도하는 섹스가 그에게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매력이고 삶의 충전이다. 성적 취향과 외도가 성만족의 수단으로 되는 진옥이를 통해 사회와 맞서는 내적인 힘을 보이기도 한다.

진옥이 남편은 국영공장 만가동자이다. 차라리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진옥이 생각이 현재 북한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하는 북한사회를 죽이고 싶은 무의식이라고 볼 때 성 취향은 무시할 수 없는 북한문제이다.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북한정부가 조직한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전국 대상으로 황색바람 차단한다며 비상대책을 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은 남성의 일방적인 성적 억압대상이 아니며, 자기 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 기형적인 성사고의 변화가 금지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해도 북한사회 불륜과 성 개방은 사회문화를 국제화로 접근시킨다. 북한정부의 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 인격의 차원을 논하는 시점이 소설 주인공 진옥이를 매춘으로, 인생유전으로 단조롭게 보지 말아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싶다. 여성의 임신, 출산, 낙태도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섹슈얼리티는 오늘의 북한을 미시학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심리사회학이며 연구할만한 가치이다. 때문에 소설 '진옥이' 후속편을 쓸 계획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사회를 거시적인 문제로 평가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숨어있는 주민들의 공간과 부부생활, 성충동의 이면을 탈북자들의 소설을 통해 보는 것이 훨씬 세부학적인 연구가치라고 본다. 즉 북한기록문학의 가능성은 잠재적이라는 근거를 말하고 싶다.

チノクの性行為には合法的なセックスが無い。法的に婚姻関係にある夫とのセックスすら強要である。むしろ婚外関係のセックスのほうが彼女には性的満足を感じることのできる魅力であって生の充電になっている。性的趣向と婚外関係が性満足的手段になるチノクを通じて、社会と対峙する内的な力を見せてもいる。

チノクの夫は国営工場の‘皆勤者’である。むしろ夫が死ねばいいのにとというチノクの思いは、現在の北朝鮮女性の考えを代弁していると云っても過言ではない。夫を殺したいというよりは、北朝鮮社会を殺したい無意識だと見る時、性的傾向は無視できない北朝鮮問題だ。体制を威嚇することもできる要素として作用するという点だ。

北朝鮮政府が組織した非社会主義グループが国全体を対象に‘黄色風’[訳注 国外から流入する退廃した文化を非難する言葉。性売買を意味することが多い]を遮断すると云って、非常対策をとる理由でもある。

女性は男性の一方的な性的抑圧対象ではなく、自分の性を享受する権利がある。奇形的な性に関する考え方の変化が、禁止されたものに対する問題提起だとしても、北朝鮮社会の不倫と性解放は、社会文化を国際化に接近させる。北朝鮮政府の力で代替することのできる問題ではないという点においてだ。性に対する態度、価値観、文化等、人格の次元を論ずる視点が、小説の主人公チノクを売春として、人生流転として、単調に見ないでほしいと個人的には願っている。女性の妊娠、出産、中絶も全て含まれる。言い換えれば、セクシュアリティは今日の北朝鮮を、顕微鏡的に覗き込むことのできるもので、心理社会的に研究するだけの価値がある。そこで小説「チノクという女」の後続篇を書くつもりだ。

国際社会が北朝鮮社会を巨視的な問題で評価するのも良いだろう。だが、隠されている住民たちの空間と夫婦生活、性衝動の裏面を脱北者の小説を通じてみるのが、より細部まで窺うことのできる研究価値があると考えられる。つまり北朝鮮記録文学の可能性は潜在的だという根拠と考えたい。

\*\*\*강연발표 자료를 쓰면서 2000년대 초 탈북한 자강도 출신 40대 남성을(러시아 10년생활) 전화 인터뷰했다.

작가 :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북한에서 당시 섹스란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 북한여성들에게 성교육을 제대로 준다면 남성들이 거부감이 없을까요“

탈북남성 : “당시는 대부분 북한 남자들이 섹스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었죠. 그냥 단순 섹스였어요. 전에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90년대부터 섹스에 대한 비디오가 들어 오기시작 했어요. 북한에서는 섹스기교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자들도 표현은 잘 안하구요. 설사 여성들이 성교육을 받고 성기교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러시아에서 받는데 매우 신기 했어요. 섹스의 다양성을 보면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숨을 죽이고 봤고, 그냥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 했지 성생활에 대한 상식이 없었죠. 어떤 재미를 느끼거나 즐기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했지요.

그냥 부부가 잠자리에 들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쾌락을 추구하거나 더 이상의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모르니까 더 요구 수준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남편이 다가오면 당하는 위치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들어서 많은 여성들이 염증과 매독에 걸렸는데, 이전에는 없던 병이었어요. 여성들의 성 관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에 대한 필수품이 없고 또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임신을 조절 못하는 많은 여성들이 중절을 하고 심하게는 유방 염증과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했어요.

한마디 더 말 하면 북한은 보통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가족 모두 한집에서 살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불편한 기색을 한번도 느끼지도 못했거나와 또 부모님들이 성관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그냥 아버지 엄마가 남녀가 같이 누워 자면 아기가 하나씩 생기는 줄 알았어요“\*\*\*



\*\*\*講演発表文を書きながら、2000年代初頭に脱北した慈江道出身40代男性（ロシアに10年生活）に電話インタビューした。

筆者：「率直に教えてください。北朝鮮で当時セックスというものをどう考えていて、今北朝鮮女性に性教育をきちんとするとすれば、男性には拒否感は無いですか？」

脱北男性：「当時はほとんどの北朝鮮の男性は、セックスについて知識や概念が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まま単純なセックスだったんです。前にも少しはあったでしょうが、90年代からセックスに関するビデオが入ってきはじめました。北朝鮮ではセックスの技巧を恥ずかしいものと考えてるので、男性も表現をあまりしませんね。例え女性が性教育を受け性の技巧を望むとすれば受け入れるには時間がかかるでしょう。」

初めてロシアで性教育を受けた時は不思議でした。セックスの多様性を見ながら、ああいうふうにするんだな、息を殺して見ましたし、ただ人間の本能だと考えて性生活に対する常識がありませんでした。何かおもしろさを感じたり、楽しみを感じることを知らないでいたんです。

ただ夫婦が寝床に入れば本能的にそうするもので、それで快楽を追求するとか、それ以上の欲は無かったようです。妻も知りませんからそれ以上要求することもなく、一方的に夫が近づけばされるままの位置にあったようです。90年代に入って多くの女性たちが炎症と梅毒にかかりましたが、前には無かった病です。女性たちの性関係に対する知識も不足し、それについての必需品が無く、またあっても足りなかったためです。妊娠を調節できない女性たちが中絶して、ひどいときには乳房の炎症や癌にかかる場合が多く、深刻でした。

もうひと言付け加えれば、普通、幹部たちを除いた一般の住民は家族皆一つの家で暮らしましたよね。息子、娘、嫁、婿も一緒に、親たちはどれほど居心地が悪かったろうと思いますが、そんな居心地の悪そうな様子は一度も見せなかったし、それに親たちが性関係を持つのを一度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から、ただ父と母、男女一緒に寝れば、子供が一人ずつできるとばかり思っていました。」 \*\*\*

[日本語訳文 和田とも美]

## 증언문학, 탈북작가, 그리고 『국경을 넘는 그림자』

방민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방민호입니다. 한국에서 탈북작가와 한국작가가 함께 작년에 소설 앤솔로지를 펴냈습니다. 『국경을 넘는 그림자』(예옥, 2015)입니다.

### 1. 북한에 관해 쓰지 않는 한국작가들

한국에서 이 소설집이 인기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작가들은 북한 문제를 소설화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깊은 기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소설을 쓰면 이데올로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니 한국이니 하면 확실히 체제 문제, 이념 문제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보다, 지금 한국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풍속이나 유행, 아니면 '현실'을 쓴다고 하면 그런대로 대중 독자들이 책을 사주고 인기라도 얻을 수 있겠는데, 그에 반해 북한 문제라 하면 철 지난 이야기, 케케묵은 20세기적 이념 이야기, 둔중하고 완고한 이야기라는 인상을 받기 쉽고, 그러면 곧 촌스러운 작가로 낙인찍히기 쉽다는 피해 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2. 새롭게 확인된 인류적 삶의 위협들

실로, 새로운 세기는 9.11과 3.11 같은 참사들이 시사해 주듯이 인류사를 낙관할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아닌 듯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한반도가 새로운 참사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고도 경주 부근에서 강도 5.8의 큰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의 지진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해온 한국인들에게 이 지진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주 부근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늘어서 있고, 대도시인 울산이나 부산이 여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로 알아온 까닭에 한국의 시설들은 비교적 근년에서야 내진 설계를 의무화 했고, 그것도 6.5 또는 7.0 규모 정도만을 견디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지진과 해일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미증유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진과 핵발전소, 여기에 한국은 1945년 8.15 광복과 1948년의 남북한 단독정부들의 수립, 1950.6.25~1953.7.27의 한국전쟁 이후 늘 계속되어 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본어로 '기타조센'이라고 부르는 북한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은 '완문점 체제'라 불리는 휴전협정 체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휴전선의 북쪽에서는 지금도 가혹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証言文学、脱北作家、そして『国境を超える影』

方珉昊（パン・ミンホ）

こんにちは。ソウル大学国文学科教授方珉昊です。韓国で脱北作家と韓国作家が一緒になって、昨年小説集を刊行しました。『国境を超える影』（2015）です。

### 1. 北韓について書かない韓国の作家たち

[訳注 ‘北韓’は北朝鮮を意味する韓国語。この文章では元のまま‘北韓’を使用する]

韓国でこの小説集が人気が無いのは、ある意味当然だと思います。韓国で作家は、北韓の問題を小説化することに、ある種の深い忌避意識を持っています。まずそういった小説を書けば、イデオログだと誤解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ます。実際、北韓とか韓国だとか云うと、確実に体制の問題、理念の問題に関連付けられざるを得ないので、そう思うのも無理はありません。それより、今韓国内に台頭しつつある風俗や流行、でなければ‘現実’を書くと云えば、それなりに大衆読者は本を買ってくれ、人気だって得られるかもしれないのに、それとは違って北韓問題と云えば、時期を逃した話、古びた 20 世紀的理念の話、鈍くて重い、頑固な話だという印象をもたれやすく、そうするとすぐダサイ作家だという烙印を押されやすいという被害意識が作用していることを否定するのは困難です。

### 2. 新たに確認された人類の生の危険

実に新しい世紀は、9.11 や 3.11 のような惨事が示唆しているように、決して人類史を楽観できる時代ではないようです。この文脈で、私は韓半島[訳注 朝鮮半島の韓国語]が新しい惨事の震源地になり得ると思っています。最近、韓国の古都、慶州付近でマグネチュード 5.8 の大きな地震が起き、人々を驚かせました。日本の地震を‘対岸の火事’にしていた韓国人に、この地震は大きな事件でした。この慶州付近には原子力発電所が並んでいて、大都市蔚山（ウルサン）や釜山（プサン）が遠くないからです。長い間地震に安全な国だと考えて来たので、韓国の施設は比較的近年になって耐震設計を義務化し、それも 6.5 または 7.0 程度の規模に耐えるぐらいにしました。こういう状況で日本のフクシマのような地震と津波が起きるとすれば、それこそ未曾有の災害になるでしょう。

地震と原子力発電所、ここに韓国は 1945 年 8 月 15 日の光復[訳注 植民地解放]と 1948 年の南北韓それぞれの単独政府樹立、1950 年 6 月 25 日から 1953 年 7 月 23 日の韓国戦争以後、ずっと続いて来た問題を抱えています。それはつまり、日本語で「北朝鮮」と呼ばれる北韓問題です。現在韓国の人々は‘板門店体制’と呼ばれる休戦協定体制を受け継いでおり、休戦線の北側では、今でも過酷な独裁政治が行なわれています。

그것은, 북위 38도선 이남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체제로 채택했고,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 독재체제를 경험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게 된 한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거주이전, 집회결사, 언론 및 의사표현 등의 자유를 비롯하여 심지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 것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북한체제라는 참사 또는 재앙과 한국문학에의 요청

지금 한반도는 많은 골칫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선 이북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말로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참사요,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한국에 살면서 평론을 하고 소설을 쓰는 제가 과연 이 문제에 관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유토피아적이고, 급진적인, 생각들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나 노동자 아닌 내가 과연 그들의 삶의 편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회의와 '비행동'의 윤리를 '채택'했습니다. 그와 같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행동'의 윤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북한에 살고 있지 않고,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북한인들의 경험과 생각, 감정을 같이 할 수 없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다, 9.11에 대해서도, 또는 3.11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가 성립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문학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 왜 글을 써도 전달도 안되고 읽힐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곳의 이야기를 써야 하느냐, 북한 얘기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나 체제 개혁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에 관한 글쓰기를 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증언문학'들'의 가능성과 탈북문학

『국경을 넘는 그림자』에는 두 유형의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10년 사이에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와서 소설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이른바 '탈북 작가',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기왕에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작가들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작가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이지명, 도명학, 설송아 작가를 포함하여 윤양길, 김정애, 이은철 등이고, 후자에 속하는 작가들은 윤후명, 이청해, 이평재, 이성아, 정길연, 신주희, 그리고 저입니다.

이 두 부류의 작가들은 각기 다른 처지에서 북한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북한 쓰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읽고 다른 이해 또는 평가의 기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두 유형의 '북한 쓰기'에 공통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それは、北緯 38 度線以南に米軍が進駐して自由民主主義を基本体制として採択し、もちろん長い期間にわたって独裁体制を経験しましたがこれを克服して現在のような民主主義体制をとるようになった韓国とは、全く異なるものです。現在北韓は、居住移転、集会結社、言論及び意志表現等の自由はもちろん、ひどいことには社会主義を標榜しながらも、労働者が自分の権利を行使する権利を、何も持ち得ないでいます。

### 3. 北韓体制という惨事または災難と韓国文学への求め

今韓半島は、多くのトラブルを抱えています。ですが休戦線の以北で、毎日毎日起こっている事こそが現在の進行している惨事で、災難と云わざるをえません。そしてここから私の苦悩は始まります。韓国に生きて評論を書き、小説を書いている私が、果たしてこの問題についてどんな態度をとれ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ずっと以前、私は人類の未来についてユートピア的で急進的な考えを抱いていたこともありましたが、その頃私は、しかし労働者ではない私が、果たして彼らの生活の側に立てるだろうか、という苦悩の中で、‘知識人’としての懐疑と、‘非行動’の倫理を‘採択’しました。それと同様に、北韓問題についても同様に‘非行動’の倫理を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私は北韓に住んでおらず、北韓の実情をまともに知ることができず、北韓の人々の経験や考え、感情を共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従ってそこでの出来事を簡単に語ることはできない、9.11 についても、または 3.11 についてもそういう論理が成立可能だとも考えます。そのせいか、韓国の文人たちの間では、韓国で起こる出来事に集中せねばならない、なぜ文章を書くなら、伝達もされず読まれもせず、影響を及ぼすこともできない場所の話を書かねばならないのか、北韓の話をするのは、韓国の民主主義や体制改革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云々の理由をあげて、北韓に関して文章を書くことをタブー視する傾向があります。

### 4. ‘各種の’証言文学の可能性と脱北文学

『国境を超える影』には、二つに分類される作家の作品が、共に収録されています。一つは最近 10 年の間に北韓を離脱して韓国に来て、小説創作活動をしているいわゆる‘脱北作家’、もう一つは韓国でもともと生活し作品活動をしていた作家たちです。前者に該当する作家は、この場に来ているイ・ジミョン、ト・ミョンハク、ソル・ソンア作家を含む、ユン・ヤンギル、キム・ギョンエ、イ・ウンチョルであり、後者に属する作家は、尹厚明、李青海、李平宰、李星雅、鄭吉娟、慎珠熙そして私です。

この 2 つに分類される作家は、それぞれ異なる立場から北韓での暮らしを描いていると云えます。この 2 つに分類される‘北韓を書く’ことについて違ったやり方で読み、違ったやり方で評価の基準を準備するほうが良いでしょう。それより先に、この 2 つに分類される‘北韓を書く’ことに共通する問題を考えて見ます。

그것은 ‘기록문학’ 또는 제가 좋아하는 용어로 말하면 ‘증언문학 testimony literature’이라는 것입니다. testimony 대신에 witness, 즉 목격자 또는 증인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이고 그렇게 쓰는 사례를 몇몇 논문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증언문학 또는 목격자문학이라는 특별한 글쓰기가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1989년의 소비에트연방(소련) 해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동구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빌린 독재체제들이 퇴조하면서 그 체제 아래에서의 삶을 회상, 기억하는 작품들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 또는 회상은 동구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의 삶을 향한 수단만은 아니요, 특히 제국주의 체제를 경험한 식민지, 탈식민지의 문학인들이 즐겨 채택하는 글쓰기 방법이요, 여성이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고자 할 때도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증언문학 또는 목격자 문학이라 할 때 저는 노벨상 수상작가인 프랑스의 가오싱 쟈의 『나 혼자만의 성경』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지금 프랑스 국적을 얻었지만 중국 사람이고 문화혁명을 헤쳐 나온 쓰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무렵 저는 두 권으로 번역된 『나 혼자만의 성경』을 읽고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작가들의 소설은 바로 이러한 증언문학, 목격자 문학의 문학적 가능성 위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글쓰기입니다.

## 5. 『국경을 넘는 그림자』와 탈북문학의 전망

‘한국에서 탈북문학 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탈북이라는 현상은 1990년대 초중반에 시작되어 2000~2010년에 본격화되었고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북한 안에서는 반체제적 증언문학이 공식적으로 발표, 출판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의 반체제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탈북 작가들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 안에서 ‘불온한’ 작품을 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북작가들은 가혹한 체제에서 탈출해 왔지만 동시에 정착한 곳의 체제적 환경,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상황에 자신들을 내맡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본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든 발표, 출간하고 있겠지요. 한국에서 이 일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각각의 작가들이 두 체제에 대한 ‘내성’을 확보하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눈으로 세상을 읽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경을 넘는 그림자』라는 미흡한 첫 시도를 통하여, 한국에서 북한에서의 삶을 말하는 증언문학이 이제 첫 발을 떼었으며 앞으로는 더 깊은 고민들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は‘記録文学’または、私が好んで使う用語でいえば‘証言文学 testimony literature’というものです。testimony の代わりに witness、つまり目撃者或いは証人という言葉を使っても良いでしょうし、そう書いている事例をいくつかの論文で見たことがあります。証言文学または目撃者文学という特別な創作が、ヨーロッパでは 1990 年代以降に新たな関心の対象になっています。私の考えではこれは 1989 年のソビエト連邦（ソ連）の解体という歴史的な事実と密接な関係があります。ソ連の解体と共に、東欧社会主義体制が崩壊し、世界各国で社会主義という名前を借りた独裁体制が退潮し、その体制下の生を回想、記憶する作品が新たに光を当てられ始めました。しかしこの記憶または回想は、東欧社会主義体制の下での生に向けられた手段としてのみならず、特に帝国主義体制を経験した植民地、脱植民地の文人たちが、好んで採択する創作の方法で、女性が男性中心主義的社会の中で自分自身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を考えようとする際にも、有効な方法として活用されてもいます。

証言文学または目撃者文学と云う際に、私はノーベル賞受賞作家であるフランス国籍の高行健（ガオ・シンジェン）の『ある男の聖書』をよく思い浮かべます。彼は今、フランス国籍を得ましたが、中国の人で文化革命期を通り抜けたつらい経験を持っています。彼がノーベル文学賞を受賞する頃、私は韓国で 2 巻物で翻訳された『ある男の聖書』を読んで深い感動を覚えました。

韓国で活動する脱北作家たちの小説はまさにこうした証言文学、目撃者文学の文学的可能性の上に根拠を置いている創作です。

## 5. 『国境を超える影』と脱北文学の展望

‘韓国で脱北文学をすること’はとても困難な作業で、いままさに始まったばかりだと云えます。脱北という現象は 1990 年代初中盤に始まり、2000～2010 年に本格化し、今は多少小康状態ですが、今後も持続するしかないでしょう。現在の北韓の中では反体制的証言文学が公式的に発表、出版されることは不可能ですから、相当な期間の間、北韓の反体制文学を代表するものは、脱北作家の中から出て来るしかないと思われまふ。もちろん今も北韓の中で‘不穏な’作品を書く人は、いくらでも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脱北作家たちは過酷な体制から脱出して来ましたが、同時に定着したところの体制的環境、政治及びイデオロギー的状况に、自身の身を任せねばならない難しさを経験することになります。日本に定着した北韓の人々も、自分たちの話をどういう形式であれ、発表、刊行していることでしょう。独自の目で世の中を読み、解釈して表現することは簡単な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私は『国境を超える影』というまだ不完全な初めての試みを通じて、韓国から北韓での生を語る証言文学が、今最初の一步を踏み出したところで、今後はもっと深く苦悩しながら進んで行くだらうと考えます。

[日本語訳文 和田とも美]